

지역 소식통

고창군, 노동저수지

물안개 생태문화길 조성

고창군(군수 심덕섭)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고창읍 노동저수지에 위치한 노동저수지의 생태문화길 조성공사가 완료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노동저수지 둘레길은 전북 1000리길 '고창읍성길'에 포함된 600m 수변 생태문화길이다. 자연마당 조성 이후 지역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까지 급증하면서 군은 주변관광시설을 연계한 생태문화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저수지 생태문화길을 확충했다.

경관이 수려하고 환경이 깨끗할 뿐 아니라 고창읍에서 가까워 주민들이 산책하기 좋은 코스이다.

군은 노동저수지는 물론 인근 고창읍성, 자연마당과 전불길 등 주변관광시설을 연계하는 생태문화공간 조성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보안면, 정월대보름

맞이 신년행사 성료

부안군 보안면은 3일 청자골 문화센터에서 정월대보름 맞이 신년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보안면 사회단체 협의회(회장 이치환)가 주관하여 열린 이날 행사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서로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며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익현 부안 군수, 김정기 도의원, 이현기 부의장을 비롯해 각 마을 이장, 기관·사회단체장 등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보안면에서 직접 일군 농산물로 만든 찰밥과 나물을 함께 먹으며 한 해의 풍년과 액막음을 기원했다.

신철호 면장은 "역사·문화자원의 명맥을 이어가는 보안면에서 민족 고유의 세시풍속 정월대보름 전통문화를 다스리급 새기고 이웃들과 어우러져 덕담과 정을 나누니 2023년 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될 것 같다"라며 "연초 액운을 물리쳤으니 기묘한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비바람"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정읍시, 80억 규모 2027년까지 5년간 샘고을 시장 등 주요 상점가 활성화 나서

정읍시가 낙후된 구도심 상권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상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제6차 상권 활성화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낙후되고 쇠퇴한 구도심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하는 등 상권의 부흥을 유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샘고을 시장과 중앙로 새암길, 우암로 상점가 일대를 활성화 구역으로 정하고 상권환경개선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상권 활성화 사업을



전담할 타운메니저를 채용하고 상권 활성화 기구(법인체)를 설치해 각종 상권 활성화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구에는 상권 활성화 전문가와 지역상인, 거주자 등으로 구성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긴밀한 소통과 협의로 사업 기간 중 추진하는 주요 안건이 지역의 현실에 부합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추진으로 시장 상권 브랜드화에 따른 상권 불거리, 즐길 거리 등 인프라 확충 효과와 상인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상권 기반 구축, 다양한 연계 사업들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 고유성을 간직한 샘고을 시장과 주변 상점가가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함으로써 상권 유입 요소가 보충되고 관련 역사 인문 콘텐츠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타운메니저 채용이 완료됨에 따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상인들을 위한 상권 활력 개선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과 서울 강서구 김태우 구청장이 만나 상생발전과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양 자치단체의 결속을 다졌다.

"인적·경제적 교류가 확대되길"

강서구 대표단 정읍 방문...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이학수 정읍시장과 서울 강서구 김태우 구청장이 만나 상생발전과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양 자치단체의 결속을 다졌다.

정읍시의 자매도시인 강서구의 김태우 구청장을 비롯한 18명의 강서구청 대표단은 지난 2일 정읍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자매도시 간 공식 교류 행사다.

이 시장과 김 구청장은 이날 두 도시 간 화합과 우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그간 코로나19로 단절된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상호중존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경제·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전개하고, 공동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특히, 이 시장이 지난 27일 강서구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을 전달한 데 이어 이날 김 구청장이 정읍시에 고향사랑 기금을 전달, 상호 간 발전을 응원하며 협력관계를 돈독히 했다.

김태우 구청장은 "천혜의 자연과 유구한 역사·문화가 숨 쉬는 정읍시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 자매도시 간 인적·경제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생협력 교류를 통해 정읍시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지속적인 협력자로서 강서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어려운 이웃에게 신선 농축산물 공급'

고창군, 농식품바우처 신청·접수... 기초생활 수급가구 등 월 4~8만원 자동충진

고창군에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신선한 농축산물이 공급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지난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중위소득 50%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약 4500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0일 부터 농식품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고창군은 지난 연말에 사업

공모에 선정돼 9억4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어려운 이웃들은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바우처카드를 발급, 지급된 카드는 4월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 부터 4인 가구 8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지원금은 매일 1일 충전되는 방식이다. 구매품목으로는 채소, 과일, 흰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등 농축산물을 가까운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거동불편자를 위한 꾸러미 배달 서비스는 별도로 도입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취약계층에 있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상자들이 빠짐 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지역 상품 '실시간 홍보·판매 지원사업' 본격 시동

정읍시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품을 홍보·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소통 방송인 '라이브 커머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라이브 커머스'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 패턴 변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유통시장의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학수 시장은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해 지역 상품의 우수성

을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라이브 커머스 지원사업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정했다.

관련해 시는 오는 17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농산물·농산물 가공품·공산품 생산업체를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또는 농업인으로 농산물·농산물 가공품·공산품 등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업체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이메일 (ippuzi@korea.kr) 접수하거나 정읍시청 지역경제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

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자 중 사업 적합성과 가격 적정성, 제품 경쟁력 등을 평가해 2월 중에 20개 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실시간 방송 판매에 필요한 영상 제작(업체당 1회, 60분)과 제품 홍보, 판매 도우미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작 영상은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송출된다.

이학수 시장은 "실시간으로 지역 상품 홍보·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수한 지역 상품을 전국에 널리 알려 판로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변산면서 가력대체항 풍어제 개최

바다에서 안전조업과 민선을 기원하는 풍어제가 지난 2일 가력선착장(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소재)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이날 행사는 매년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개최되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19로 중단되었다가 3년만에 재개된 것으로

가력선착장을 이용하는 선주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어업인단체인 가력대체항 어민협회(회장 김선주) 주관으로 이정석 부안군 부군수를 비롯한 수산분야 유관기관·단체 임직원과 협회 회원들, 지역 어업인 등 약50여명이 참석해 안전조업과 풍어를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선착장 주변에 화려한 오푸기 게양과 신명나는 농악놀이로



시작으로 배고기와 음식나눔행사 등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정석 부군수는 "코로나 19를 이겨내고 3년만에 재개된 풍어제를 축하하며 어업인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올 한해도 무사고 민선으로 풍요를 만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